

# “정성들여 수확한 사과로 기부 기쁨까지”

# 희로애락 함께한 ‘국민배우’ 송재호 별세



고훈숙(왼쪽) 드림공동체 영농조합 대표와 장성 드림빌 사과 테마공원마을에서 사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



## 고훈숙 드림공동체 영농조합 대표

### 사과 테마공원마을서 수확체험 행사 지역 농산물 판매전·그림 대회 등 다양 ‘사랑의 한알 사과’ 기부행사 진행 지역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보람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장성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장성군 드림빌 사과 테마공원마을(이하 공원)에서 사과 수확체험 행사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공원을 운영하는 고훈숙(여·52) 드림공동체 영농조합 대표는 “옛날엔 장성 사과가 유명했는데, 열대 작물이 강세인데다 기후 영향으로 사과 생산자가 줄어들고 있는 처지다”며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장성 사과를 널리 알리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이곳 공원 4600평 부지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다.

수확 체험은 지난 1~3월 한 그루당 7만원씩 미리 사과나무를 분양한 이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진다. 수확한 사과가 20kg을 넘지 못할 경우, 조합 측에서 부족한 사과를 보충해 준다. 분양되지 않은 사과나무는 지역아동아동센터, 유치원, 학교, 회사 등 단체 수확 체험을 위해 남겨두었다.

공원에서는 사과떡 만들기, 장정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지역 농산물 판매전,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된다.

“사랑의 한알 사과” 기부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수확 체험 후 비치된 기부 박스에 사과 한 두알을 채워주면, 이를 지역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사과 40kg이 모였는데, 조합에서 60kg을 추가해 총 100kg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장성 드림빌에서는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고 대표 또한 귀촌인으로, 광주에서 생활하다 지난 2013년 장성에 왔다.

그는 지난 2017년 귀농귀촌인들을 한 데 묶는 드림공동체 영농조합 결성을 주도했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 7명과 80여명 마을 주민(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드림빌은 다른 여러 지역에 살던 이들이 한 데 모

여 있지요. 그래서인지 마을의 정체성이 흐릿하고, 장성 군민들과 잘 화합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몸치지도 못해 걸돌고 있었어요. 이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요.”

조합은 지난해부터 장성군으로부터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처음에는 고 대표도 “막막하고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군에서 5년여 동안 운영하던 중 사과나무나 센터, 시설물 등이 파손·방치돼 왔던 터라 복구가 힘들었던 것이다.

“시설을 청소하고, 복구하는 데 마을 분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지요. 올해는 군에서 6000만원을 들여 시설 보안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최근 태풍·홍수로 나무가 잠기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있었지만, 민·관이 힘을 합친 덕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 대표는 장성 드림빌을 바탕으로 지역을 부흥시키겠다는 열정과 자신감이 넘친다. 그는 “주변 사과농가들과 행사를 함께 하면서 ‘사과의 고장’ 장성을 이끌고 싶다”며 “또 가족과 함께 즐기는 치료·힐링팜으로서 지역 관광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건강함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원로 배우 송재호가 7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북한 평양 출신으로 동아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1959년 KBS 부산방송총국 성우로 데뷔한 송재호는 1964년 충무로로 찾아 영화 ‘학사주점’을 시작으로 배우로 전향했다. 1968년에는 KBS 특채 탤런트로 선발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1975),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1981), 드라마로는 1980년대에 높은 인기를 누린 ‘보통사람들’과 ‘열풍’, 그리고 김수현 각본의 ‘부모님 전상서’(2004~2005) 등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평해전’과 드라마 ‘싸인’, ‘주적자’, ‘동네의 영웅’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과 ‘질



투의 역사’로 병세가 깊어지기 전까지 평생을 연기에 전념하며 반세기 넘도록 세월 대중과 호흡한 ‘스튜디오 스타’였다. 드라마에서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 ‘용의 눈물’ 등으로 익숙하다. 최근작은 영화 ‘질투의 역

사’, ‘자전차왕 엄복동’이다. 이밖에 국제사격연맹 심판 자격증이 있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클레이 부문 심판으로 참가했으며 대한사격연맹 이사로도 활동했다. 야생생물에도 관심이 많아 야생생물관리협회 장도 맡고 있었다. /연합뉴스

## 임영웅 광주·전남 팬클럽 회원들, 복지관에 쌀 기부



트롯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전남 회원들은 6일 광주 사회복지관 60곳에 쌀과 커피를 기부했다. 팬들이 기탁한 10kg 쌀 120포, 커피 120박스는 아동 그룹홈 35곳,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25곳에 전달됐다. <광주시청 제공>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장 윤도식

### ◆광주시

◇4급 승진 ▲건강정책과 보건기획담당 송혜자 ▲도시재생정책과 뉴딜사업담당 박남균

◇5급 ▲건강정책과 장명화·박주연·범영자 ▲보건환경연구원 김태순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이 맛에 산다(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연중 라이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in(재)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녕 우리말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30 꿀잼 영화가 좋다(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Q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③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특선 애니메이션 극장판 반지의 비련밀기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배낭 메고 인생 네 컷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2020 KBO 플레이오프 1차전 <두산·KT>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전교톱10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축구야구말구		00 생활의 달인
⑩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10 MBC 뉴스데스크	00 펜트하우스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특집 힘내라! 위대한 여러분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⑫	10 다크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1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35 나이트 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박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톡!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식e	19: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7:45 꼬마하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크프라이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축하와 야생의 땅 -영하 70도의 겨울왕국>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00 보로로 동화나라	16:15 로빈 후드	<가을이 한 그릇 1부 마음이 희기질 때, 절박>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를 다이러리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음 9월 24일 丙辰)

<p>36년생 힘은 들었지만 보람은 느낄 것이다. 48년생 기대하 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겠다. 60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72년생 대비하는 이만이라도 손실을 최소화 하라. 84년생 괜히 나서다가는 실기할 수다. 96년생 우 려되는 점이나 모순점을 간과하지 말고 확실히 처리하여 시 행작을 최소화 하자. 행운의 숫자 : 18, 55</p>	<p>42년생 지대한 천착을 보이겠다. 54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 른 방향이다. 66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78년생 직 접적이지 않다면 나서지 말라. 90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02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 너지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58</p>
<p>37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49년생 의외 로 복잡한 국량이다. 61년생 본인이 예상해 왔던 바에 틀림 없이 적중할 것이다. 73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 겨봐야 한다. 85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 이 더 낫다. 97년생 고난이도의 일이나 신경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00, 53</p>	<p>31년생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볼 일이다. 43년생 기다리 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5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 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67년생 확실한 여력이 필요한 때이 다. 79년생 컷노래가 나올 것이다. 91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5, 99</p>
<p>38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이다. 50년생 파 격적인 재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74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존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다. 86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 이 무리가 없느니라. 98년생 반작용 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0, 62</p>	<p>32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44년생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다. 56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 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68년생 차분하게 고생 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다. 80년생 똑 같은 상상이라 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92년생 불평만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행운의 숫자 : 12, 94</p>
<p>39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51년생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낙담하지는 말라. 63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 하 겠다. 75년생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됨을 알라. 87년 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99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4, 57</p>	<p>33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5년생 확 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57년생 변동으로 인해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다. 6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다. 81년생 가변적인 상황 이나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93년생 만남과 교류 속에 발전 을 이끄는 정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96</p>
<p>40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문제점이 보인다. 52년생 눈높 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64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적당 히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8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다 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00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절이 시급하니 즉시 실행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9, 97</p>	<p>34년생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은 알라. 46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58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70년생 자 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라. 82년생 머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94년생 차라리 아니함 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56</p>
<p>41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3년생 질적 인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65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 이다. 77년생 목표점에 근접 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 는 미약하다. 89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장 이 많을 것이다. 01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50</p>	<p>35년생 시종일관 본됨없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만 할 것이 니라. 47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 다. 59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71년생 조 건을 구비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83년생 결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95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 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92</p>